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백지화

광주시-서희건설 법적분쟁 예고

광주시, 300억 규모 주차타워 건립
서희건설, 손해 청구 등 소송 검토



호남고속철도 복합환승센터로 활용될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전경. /뉴스시스

광주시가 수년째 표류해온 2000억원 대 규모의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하고 사업자 측에 최종 '사업종료'를 통보했다.

사업자인 서희건설컨소시엄 측은 광주시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행정 효력정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어 심각한 법적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희건설컨소시엄에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종료'를 통보했다.

지난 2013년 7월24일 협약 체결 이후 장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고 한국철도공사와 진행해 온 환승주차장 협상도 무산됨에 따라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이였다.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광주송정역 일대 19만㎡ 부지에 환승, 판매, 업무, 자동차시설과 함께 7200㎡ 규모의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이번 사업종료 결정에 따라 지난 2010년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 7년6개월, 서희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4년11개월 만에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광주시는 복합환승센터 대신 코레일 주도로 300억원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희건설컨소시엄의 주관사인 ㈜서희건설 측은 광주시의 일방적인 사업종료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업종료 행정처분 취소와 효력정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다각적인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광주시와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업종료 통보에 따른 법적소송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취소와 함께 그동안 소모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를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개발하려던 광주시의 당초 계획은 무산되고 지난한 법

적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환승센터에서 주차타워로 변경될 경우 1913송정역시장 등과 연계한 문화시설 확충은 물건너 가고 1500면 규모의 주차빌딩과 일부 편의시설만 들어설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호남선 KTX에 이어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까지 개통되면서 광주송정역 이용객이 급증했지만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늦어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공공개발로 주차타워를 건립할 경우 재정적 부담을 덜고 공사기간도 대폭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 2010년 선정한 복합환승센터 시범역은 전국에 모두 8개로, 이 중 완공된 곳은 동대구역이 유일하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벌집제거·동물포획·문 개방

생활민원성 신고 '긴급·비긴급' 선별대응

전남도소방본부 시범운영 실시



전남도소방본부 소방대원이 벌집을 제거하고 있다. /뉴스시스

전남도소방본부는 무분별하게 쇠도하는 생활민원성 119신고들 '긴급'과 '비긴급'으로 선별 대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119 생활안전활동 출동 기준'을 마련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전남도소방은 생활안전출동 기준을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으로 구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사항의 경우 곧바로 119가 대응키로 했다.

반면 위험성이 없는 단순 문 잠김이나 동물 퇴치 등의 경우 110으로 이관해 유관기관에 이첩 또는 자체 처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소방본부의 지난해 구조 건수는 총 3만 173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59%인 1만 8734건이 단순 생활안전활동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벌집 제거 9158건(48.8%), 동물 포획 5275건(28.1%), 안전 조치 1635건(8.7%), 문 개방 1503건(8%) 기타 1163건(6.4%) 순이었다.

그동안 생활민원성 출동 대부분을 처리해온 소방의 출동시스템은 순직사고 발생, 화재 등 긴급상황 대응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켜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소방본부는 8월 말까지 비긴급성 신고 자체 홍보활동을 펼치면서, '119 생활안전활동 출동 기준'에 따라 선별 대응 출동을 시범 운영한다.

이후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한 후 9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박동하 전남도소방본부구조구급과장은 "소방 본연의 임무인 화재·구조·구급 등에 집중,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19 생활안전활동 출동 기준을 마련했다"며 "도민의 많은 협조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때 이른 무더위' 광주 수두 등 감염병 주의

유행성이하선염 환자 78% 증가
손 씻기·익혀먹기 예방수칙 당부

때 이른 무더위로 수두 등 각종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어 광주시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 관내 의료기관에 신고된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 환자가 각각 297명과 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과 비교해 각각 96%, 78% 증가한 수치다.

수두는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물집이 1주일가량 발생하며, 물집성 병변에 직접 접촉하거나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 전파를 통해 감염된다.

유행성이하선염은환자의 30~40%가

량이 귀밑 침샘부위가 붓고 1주일가량 통증이 있으며, 기침 시 분비되는 침방울로 전파될 수 있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예방접종을 제때 하면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또 5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열과 함께 입안·손발의 수포성 발진의 특징을 나타내는 수족구병은 5월부터 발생해 6월 말 최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수족구병은 바이러스성 접촉성 감염병으로 대부분 증상 발생 후 7~10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하지만 드물게 뇌수막염이나 뇌염 등 중증 질환이 동반될 수 있어 고열·구토·무기력증·호흡곤란·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수족구병은 아직 예방백신이 없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어린이집 등에서 장난감 등 아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를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

광주시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의 활동이 왕성해져 식중독·비브리오 패혈증 등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 감염병과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각결막염 예방을 위해 모기 활동이 활발한 야간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모기 기피제 사용, 긴 소매 옷 착용, 개인용품 관리 등을 권고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전남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농수산물 '746만 달러' 수출협약

전남도는 농수산식품의 수출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 1일까지 3일간 목포에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어 746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중소기업진흥원과 광주전남KOTRA지원단이 공동 주관했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전남도 해외통상사무소 공동으로 바이어를 물색해 미국, 인도, 일본, 유럽 등 11개국에서 20명의 바이어를 초청했다. 전남지역 참가 수출기업은 72곳이다.

상담회 결과 장흥식품 등 5개 기업이 미국 왕글로벌넷(WANG GLOBALNET)사와 230만 달러의 계약을 이룬 것을 비롯해 25개 기업이 13명의 바이어와 총 746만 달러어치의 계약(MOU포함)을 체결했다.

이날 총 244건의 수출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김, 미역, 소금, 젓갈, 전복류 등 수산물의 인기가 좋았다.

그 외에도 장류, 유자차·녹차 등 차류, 고구마식품도 바이어들의 눈길을 끌었다. 바이어들은 또 수출기업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앞으로 추가 상담에 나설 예정이어서 수출 거래가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신안·무안, '낙지 갯벌목장' 4곳으로 확대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갯벌낙지의 자원량 회복에 효과가 큰 '낙지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이달 말까지 신안·무안 지역 4개소 34ha를 조성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전남의 낙지 생산량은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5477t이 생산됐으나 남획과 여장 환경 변화로 자원량이 점차 줄어 2017년 4036t이 생산됐다.

공급량이 부족해 소비자 가격 상승하고, 수입량(3만6265t)이 늘고 있다.

낙지목장은 갯벌이 잘 발달된 마을어장에 번식장을 조성해 육상 수조에서 교접(교미)을 마친 암컷을 번식장에 방사하고 어업인들의 자율적 관리를 통해 자연환경에서 부화·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형태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 낙지 자원 회복 연구를 통해 해당 어촌계에 기술이전을 하고 순천, 무안, 신안, 함평지역 12개소 67ha에 이미 낙지 6천여 마리를 교접·방사해 목장을 조성해왔다.



/유투이미지

지난해 낙지목장 조성지역 자원조사를 한 결과, 낙지 서식량이 2.3~5.3배 늘었고, 생산량이 평균 54% 이상 증가했다. /전남 완도=김남중 기자

육군 31사단장에 소영민 소장 취임

소영민 소장(사진)이 육군 31사단 38대 사단장으로 취임했다.

육군 제31보병사단은 지난 4일 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소영민 38대 사단장 취임식이 열렸다.

취임식에는 지역기관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 초청인사, 부대 장병 등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례, 명령낭독, 부대기(지휘권) 이양, 열병, 작전사



령관 훈시 등으로 진행됐다. 신임 소 사단장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1988년 학사 11기로 임관해 6사단 19연대장과 육군본부 인력획득과장, 육군본부 제대군인 지원처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김남중 기자